

2023년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심의평

- 2023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역의 의제를 반영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상과 실행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수된 279건(리서치형 137건, 프로젝트형 142건)의 지원신청서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리서치형의 경우 서류심의를 통해 총 30건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프로젝트형의 경우 서류심의와 인터뷰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리서치형의 지원수에 늘랐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형의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지역별 접근의 방식에서 유사성을 간취해 낼 수 있었습니다. 심의에서 주되게 본 지점은 접근의 다양성을 창의적으로 만들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만큼 리서치라는 과업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대동소이한 지점이 보였고, 이 지점이 감점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본 사업을 지원자 개인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지원한 경우도 배제하였습니다. 공익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지원서의 내용으로 예측이 어려운 경우, 예산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프로젝트형의 경우, 지원수 뿐만 아니라 90년대생 지원주체수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점에도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기획 주체의 연령대가 폭넓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지역문화활성화에 대한 주체적 고민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심의기준은 1-2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경기도 내 동일 지역 내 유사 콘텐츠 지원도 세심히 상호 검토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리서치-설문-결과정리 등의 도식적인 접근법은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와 역사, 기억의 복원을 소홀히 하지 않으나, 당대성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원자가 논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술상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타당한 수준까지 설명하고 있으나 서식 내 일관된 구도로 도입부터 예산운영까지 그 주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의의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 한 명의 예술가 또는 기획자가 지역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있고 어떤 지점을 파고드는지가 모호한 기획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진정성과 태도의 문제일수도 있고,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우려는 사회·정치·경제적 문제 해결사를 자칭하는, 그리고 문제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얻으려는 다소 위험한 사고의 기획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지금, 여기를 보지 않고 과거에 얽매인 낡은 전통적 관념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개선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본 사업에는 특히 예술의 사회적 개입 활동을 오랜 시간 이어온 기획자 및 예술가그룹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작품이나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이전에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만들어내는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구체화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획을 한다, 혹은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신 있는 발언보다 열린 기획이나 만남 자체에 집중하려는 태도에 집중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면접에서는 특히 이러한 성찰적 태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 예술가들의 참여도가 높은 경우 장소성이나 주민의 삶이 창작의 영감을 주는 소스로만 배치된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하여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기획도 많았는데 누구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물을 공유 할지에 대한 현실적 기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과연 공유가 필요한지, 어떤 공유가 의미있을지 등에 대한 기획자의 성찰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이야기가 특정 단체의 성과물 중 일부로만 기능하게 되지 않도록 프로젝트 전반에서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역문화를 전통문화로만 인식해서 동시대성으로의 독해와 번역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쉽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자체가 삶을 이루는 다양한 인과 관계의 과정과 태도,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재화되거나 대상화되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에서 지역과 지역민의 서사를 호명할 때 그 오랜 삶과 역사의 참여한 이야기들을 소모적으로 다루는 것이 윤리적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 이번 공모에는 경쟁력 있는 단체들이 다수 응모해 심의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재성을 고민하고 있는지, 자기만의 문화예술적 언어를 고민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의제를 번역하고 있는지, 해당 프로젝트가 행위로서의 예술을 표방하고 있는지, 지역의 소재나 인물을 다루는데 있어 윤리적 의식을 고취하는지, 또 미시적인 사례와 현상을 시대적 사건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 아쉬운 점은 기존의 지원단체에서 개발한 형식이나 내용을 매뉴얼화 또는 답습하려는 의지가 엿보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적 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지원단체의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님들께서는 힘을 잃지 않고 다음을 도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 4.

심의위원단 강보라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김현주 (독립기획)
 임상빈 (예술교육단체 잔피)
 최선영 (유구리최실장)